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박은우, 편집인: 임정빈
 편집: 농생대 홍보 편집위원회
 (김진모·배정환·양태진·이중용·임상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첫 삽 세계일류 연구단지를 향한 큰 발걸음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기공식

■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일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목표로 하는 서울대학교 Green Bio 첨단연구단지가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이를 기념하는 기공식이 7월 15일 평창 연구단지 부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강원도, 평창군 관계자와 내외 귀빈, 평창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이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연구

단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훌륭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서울대학교 Green Bio 첨단연구단지는 미래 농생명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의 메카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 인력양성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서울대와 지역대학간 연계교육,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종수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 조종수 교수(농생명공학부)가 제54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한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상주)은 7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학술원상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조종수 교수는 자연과학 응용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오는 9월 17일 학술원에서 거행된다. 학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해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0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2면 농생대 헤드라인
 서울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
 MOU 체결

1면 _ 조종수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2면 _ 서울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
 MOU 체결
 3면 _ CALS Global Challenger 해외탐방
 4-5면 _ 농생대 인사이드, 신임 교수 소개

6면 _ 21대 집행부 소개
 7면 _ 언론에 바친 농생대
 8면 _ 농생대 사람들

‘국가농림기상센터’ 설립을 위한 서울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 MOU 체결



앞줄 왼쪽부터 정광수 산림청장, 이장무 서울대총장, 전병성 기상청장,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는 7월 10일 기상청(청장 전병성)과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 산림청(청장 정광수) 등 3개 기관과 농림 및 기상 분야 연구와 자료 공유 등을 위해 ‘국가 농림기상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농림업의 주기농인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협하는 장애요인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림기상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우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서울대학교와 녹색성장의 선도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 기후변화 주관부처인 기상청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농림기상 관련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 국가 통합 농림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농림기상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협력 사업 수행을 위해 농생대에 ‘국가농림기상센터’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조경수 병해충 도감’ 출간



식물병원(원장 농생명공학부 김영호 교수)에서는 지난 6월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수목의 병과 해충, 생리적 피해를 망라한 도감을 발간했다. 농생대 교수 3명의 평생 연구성과를 담아 출간된 578쪽 분량의 ‘조경수 병해충 도감’에는 우리나라 수목의 대표적 병해 273종이 실려 있다. 전병성 병원균은 나용준 명예교수, 해충은 우건석 명예교수, 생리적 피해는 이경준 교수(산림과학부)가 집필을 맡았다.

강풍이나 토양의 영양결핍, 대기오염, 산성비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피해의 내용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도감에 실렸으며, 아직 학계에 공식 발표되지 않은 3종의 국내 미기록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생명과학 정기 세미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홍석우 중기청장 특강

■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및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회장 농생대 박은우 학장)는 6월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초청하여 제5회 농식품생명과학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계 경제위기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정운찬 전 총장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도 한국 경제와 금융은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일본이 1980년대 금융에서 큰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버티는 것은 굳건한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금융도 강해야 하지만 제조업과 1차 산업

(농업 등)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 6일 서울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소통과 농식품 산업’을 주제로 특강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이 농식품생명과학 정기 세미나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농식품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개최 되고 있다.



정운찬 전 총장



홍석우 중기청장

CALS Global Challenger 해외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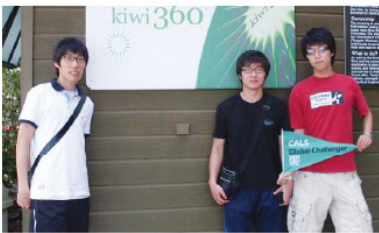
지난 겨울 해외탐방을 다녀온 제2기 CALS Global Challenger



미국 USDA-ARS(美농업연구청)를 방문한 'T, R, Y' 팀



미국 프레즈노주립대학을 방문한 'CALS Miracle' 팀



뉴질랜드 KIWI 360(윌예테마파크)를 방문한 'G, L, O, B, A, L' 팀



덴마크 Naestvad지역 유기농 농가 홈스테이를 체험한 '클러스터러쉬' 팀

■ 선진 농산업 시설 및 현장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지난 해 여름 시작된 CALS Global Challenger, 올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탐방을 다녀온 3기 Global Challenger까지 11팀, 총 29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탐방 주제에 따라 목적지와 일정을 결정하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돌아왔다.

CALS Internship

농생대 재학생에게 국내의 기업체 및 국제기구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농경제 사회학부 이두형 학생이 중앙일보 LA지사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해외 견문을 넓혔다.

농생대 학생행정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의 역량과 경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제5회 생명공학 아카데미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생명공학 아카데미'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각 기수별 75명씩, 총 3기 225명의 전국 중학교 재학생이 참가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농생대 교수진으로부터 특강을 듣고, 직접 준비된 실험, 실습에 참여하며 어렵게만 느꼈던 생명공학에 친근하게 다가가며,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과 SK에너지, 신한은행의 협찬으로 진행되었다.

<NICEM> 청소년을 위한 생명공학·환경과학 체험학습



■ 농생명과학동기지원(NICEM) 생명공학·환경과학 교육센터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생명공학·환경과학 체험학습'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방학 중 프로그램에는 4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하여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운 과학 실험을 직접 해보고, 농생대 교수진에 의한 생생한 과학 특강을 들었다.

'DNA I', 'DNA II', '미생물 I', '우리주변 환경' 등 4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된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한국마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CERES 중간보고회

기후대별 산림생태계 기능복원 연구사업단 중간보고회

기후대별 산림생태계 기능복원 연구사업단(CERES, 단장 산림과학부 이돈구 교수)은 5월 29일 농생대 200동 대회의실에서 3차년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분야의 주제 발표 및 질의 응답과 사업단 사업보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CERES는 2006년부터 산림청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 생태계 복원 연구의 통합과 국내 산림 전문가 및 해외 산림 복원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실류공통수출연구사업단 연차 평가회

과실류공통수출연구사업단(단장 식물생산과학부 이희재 교수)은 5월 29일 75-1동에서 연차 평가를 개최했다. 사업단 소개와 함께 각 세부 영역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과실류공통수출연구사업단은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과수 산업의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참여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2008년 설립되었다.



필모식

농장, 필모식

필모식(畢耗式)이 6월 1일 농장에서 열렸다. 농장에서는 해마다 모내기를 마치면서 한해의 시작과 함께 풍년을 기대하며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필모식에는 박은우 학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직원, 학생이 참가하여 풍성한 가을걷이를 기원하며 친목을 다졌다.

2009 CALS GET 프로그램

농생대는 새김산진기념사업회와 함께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2009 CALS Green Executive Tour를 실시하였다. '지역에서 희망을 일구다, Local to Global'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4기 GET 프로그램에는 농생명분야의 리더를 꿈꾸는 서울대 재학생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일본 파프리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김제의 '농산무역' 등 친환경 농법을 선도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역업체를 방문하여 견학, 체험하였다. 또한 현지 CEO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며 자신들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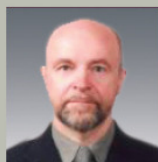


조경학전공 과제전

조경학전공 과제전

조경학전공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0동 로비에서 1학기 과제전을 개최하였다. 15일에 열린 오픈 식에는 박은우 학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진이 참석하여 학생들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다과를 함께 했다.

신임 교수 소개



산림과학부
Victor K. Teplyakov

Victor K. Teplyakov 교수(교수)가 2009년 7월 1일자로 산림과학부(산림환경학 전공)에 부임했다.

신임 Teplyakov 교수는 모스크바 주립 산림대학교에서 학부 및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스크바 주립 산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08년 3월부터는 본교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전공은 국제산림환경정책학이며, 공원 휴양학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농생명공학부
장판식

장판식 교수(부교수)가 2009년 9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에 부임했다.

신임 장교수는 본교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식품과학회 간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전공은 효소공학이며, 식품효소학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농생명공학부
신찬석

신찬석 교수(조교수)가 2009년 9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응용생명화학전공)에 부임했다. 신임 신교수는 본교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美 Columbia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후 Whitehead Institute for Biomedical Resear/MIT/HHMI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전공은 생화학이며, 생화학2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지역정보전공,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은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6월 23일 지역정보전공 세미나실에서 미국 Univ. of Washington의 Chang-Hee Christine Bae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 'Making a Livable City: The Case of Seattle'을 진행했다. 이어 6월 24일에는 미국 Univ. of Southern California의 Harry Ward Richardson 교수가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를 주제로 특강했다.



지역정보전공,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국제심포지엄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소장 농생명공학부 문태화 교수)는 6월 26일 'Nitrogen Catabolism: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Enzymes in the Ureide Pathway'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석학이 다수 참석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도시형 식물공장연구회 심포지움

도시형 식물공장연구회(회장 식물생산과학부 손정익 교수)는 7월 6일 농생대 75-1동 세미나실에서 '도시형 식물공장연구회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움은 도시형 식물공장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이론, 기술의 정착 도모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국내 연구 활동 및 일본 식물공장의 현황 등에 대한 소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손정익 교수, 장유섭 박사(국립농업과학원), Eiji Goto 교수(일본 Chiba University)가 주제발표하였다.



도시형 식물공장연구회 심포지움

제7차 한/중/일 반추대사생리 국제심포지엄

한국반추위미생물연구회(회장 농생명과학부 하종규 교수·농업생명과학연구원 축산과학기술연구소장)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간 건국대학교에서 '제7차 한/중/일 반추대사생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반추위기능 연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중/일 3국의 반추영양 분야학자들과 관련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여 학문적, 인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중/일 반추대사생리 국제심포지엄

제4회 지역분석 여름학교

BK21 범국가 및 지역분석 전문가 인력사업팀은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과 공동으로 8월 21일 제4회 지역분석 여름학교를 개최하였다. '공간계량경제모형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지역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 전공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신임 교수 소개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Damien Mugavin

Damien Mugavin 교수(교수)가 2009년 9월 1일자로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조경학 전공)에 부임했다. 신임 Mugavin 교수는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 9월부터 3년 간 본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 후 Taylor Cullity Lethlean의 Senior Landscape Architect로 근무하였다. 주전공은 조경계획 및 설계이며, 관광단지 개발론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농경제사회학부
David Bodoff

David Bodoff 교수(부교수)가 2009년 9월 1일자로 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전공)에 부임했다. 신임 Bodoff 교수는 美 Yeshiva University에서 학부과정을 이수하고 New York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스라엘의 Haifa University의 교수로 재직하며 2007년 10월부터는 고려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주전공은 농식품 MIS 및 전자상거래이며, 농업정보방법론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농산업교육과
정진철

정진철 교수(조교수)가 2009년 9월 1일자로 농산업교육과에 부임했다. 신임 정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美 Texas A&M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서울대 BK21 산업인력개발전문가양성사업팀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전공은 인적자원개발이며, 농업교육학 개론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연임하여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박은우 학장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농생대를 위해 힘써 일할 집행부가 선임되었다.
지면을 통해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본다.



학장 박은우 교수(농생명공학부)

우선 지난 2년 동안 학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신 농생대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난 2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사업들의 완성과 함께 새로 전개되는 학내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우리 농생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생대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혁신시키고, 우리가 배출하는 인력들의 인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울 것입니다. 특히 학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안사항을 고려할 때 향후 2~3년 동안 우리 농생대가 집중적으로 추진

해야 할 사업으로 1)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2) 서울대 법 인화에 대한 농생대 대응, 3) 발전기금 모금, 4)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 5) 대학의 정체성 강화 이상의 5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생대는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임기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수월성 제고를 통한 농생대 정체성 확립’을 발전목표로 삼아 ‘지원과 봉사의 리더십’을 모토로 확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생대 가족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무부학장 김기선 교수(식물생산과학부)

전통과 찬란한 업적을 자랑하는 농생대의 교무부학장을 맡게 되어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전임 1기 부학장님들이 모두 훌륭하게 임무를 마치고 떠나셔서 그 뒤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이로부터 추진되어 오던 ‘학문적 수월성 제고를 통한 농생대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밝고 명랑한 학사분위기를 만들어 여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부학장 김정환 교수(농생명공학부)



대학은 민족과 인류의 후속세대인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을 심신이 건강하고, 학문을 사랑하며, 인격과 교양을 갖춘 홍익인간으로 교육하고 다듬어서 사회와 연구분야에 배출해야 하는 자랑스러운 임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생대는 학문 특성상 여러 가지 전공이 모여 있어서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도 다양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학생부학장으로서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학생 복지향상과 역량개발을 비롯한 발전적 학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하오니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공경하는 농생대인들이 모인 훈훈한 농생대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연구부학장 이용환 교수(농생명공학부)

우리 대학의 연구부학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양적으로는 서울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이러한 양적 성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다학제적이며 국제화된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연구 환경 인프라 개선 및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수님들 및 대학원생들이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정빈 교수(농경제사회학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추진 중인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과 ‘농생대 발전기금 모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대학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대학의 효과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데 농생대 모든 구성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기획실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디지털타임스 6월 17일자〉

“생명공학작물 편견 없앨터”

- 크롭라이프코리아 대표에 박효근 교수



[기사요약] 다국적 생명공학 작물 업체들의 단체인 크롭라이프가 한국 사무소인 크롭라이프코리아를 설립하고 초대 대표로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월드비전 북한 농업연구소 소장인 박효근 교수를 선임했다. 박효근 신임 대표는 서울대 농대에서 농학과를 전공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식물육종학 박사, 농학기술 분야에 첫발을 내딛었다.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농업 발전과 원예육종 개발에 앞장섰다. 특히 전통육종가로서 다양한 학술활동과 연구성과를 보였다. 박 대표는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난 35년간 원예육종 연구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사회와 나누고 싶다”며 “기존의 전통육종과 새로운 학문인 생명공학이 언제가는 합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애 기자

〈한국경제 6월 27일자〉

[생생인터뷰]

숲 전문가 차윤정씨 “채우고 나눠주는 넉넉함... 숲에서 삶의 지혜 배우죠”



[기사요약] 산림생태학자 차윤정씨(43). 1999년 남편 전승훈 교수(경원대 도시계획조경학부)와 함께 신갈나무의 일대기를 의인체 소설 형식으로 쓴 《신갈나무 투쟁기》(지성사)를 출간한 이후 《나무의 죽음》 《숲의 생활사》 《식물은 왜 바흐를 좋아할까》 《다시 걷고 싶은 우리 숲》 《숲 생태학 강의》 등의 대중서를 잇달아 펴낸 산림생태학 대중화의 기수다. 뿐만 아니라 ‘숲 박사’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최근 봄을 이루고 있는 ‘숲 해설가’ 양성을 위한 숲 생태전문강사로도 유명하다.

▼ 숲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고3 때 교실 뒤 벽에 붙여 놓은 논 사진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농대 간다고 하다가 꽃보다는 나무가 스케일이 낫겠다며 임학과(서울대 85학번)로 갔어요. 임학과 80년 역사에 여학생이 단 6명이었는데 저희 때는 한 학년에 여학생이

6명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 숲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숲이 있으면 그늘이 있어서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최고·최저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해줍니다. 또 수분을 뿜어내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고 기화 과정에서 열을 빼앗아 가므로 온도를 낮춥니다. 아울러 그늘과 양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기압차가 생겨 바람이 불게 하죠.” 차씨는 학부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수목분류학, 수목생리학, 수목생태학을 공부해 숲에 관해 체계적인 지식을 갖췄다. 특히 박사과정 때 《신갈 나무 투쟁기》를 쓴 후 여러 책을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 2007년 《나무의 죽음》을 쓸 때는 논문 초록만 600개 이상 읽었다고 한다. 서화동 기자

〈대학신문 5월 30일자〉

지하철 타고 녹색 서울대 가자

- 산림과학부 윤여창 교수

[요약] 지난달 13일 연세대 등 27개 대학이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를 결성해 대학 캠퍼스의 녹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5일에 서울대도 지속 가능한 서울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대 구성원 모두 ‘녹색대학’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교직원과 학생은 강의실이나 연구실의 전등과 컴퓨터에서 전기와 수돗물을 아껴 쓰고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학교 당국은 교직원과 학생이 자동차를 가져 오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기를 바란다. 교통체계 개선과 에너지절약 외에도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울대를 만드는 종합적·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하겠다. 한편 지속가능한 서울대 만들기 계획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실천을 이끌 수 있는 대학본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길 기대한다. 최근 학생들이 참여하는 쓰레기재활용 운동이나 탄소발자국 측정과 같은 활동이 고무적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연합과정 “글로벌환경경영학”이 현실화되면 지속가능한 서울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는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2007년 서울대는 학생 1인을 교육하기 위해 1년에 2.4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에 비해 66%가 증가한 것으로 서울대의 환경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울대 이산화탄소 배출은 교육과 연구에 사용된 전기, 건물의 냉난방 및 자동차 연료 소비에서 비롯된다. 서울대는 교통여건이 열악하며 일조량이 적고 북풍 한파에 노출된 곳에 있어 통학과 난방에 과도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많은 교직원과 대학원생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서울대의 녹색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서울대를 만들어 가려면, 서울과 인근 도시에서 관악 캠퍼스 내까지 곧바로 지하철이나 경전철로 이어져야 한다. 지하철이나 전철 “서울대구내역”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때가 어서 와서, 나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통근하고 싶다.

[교직원소식]

수상

▶ 학술림 권순걸 선생
'서울대 트리나무상' 수상

* '서울대학교 트리나무상'은 2009년 정년 퇴임한 약대 장일무 명예교수가 하위직 직원들을 위해 기탁한 2천5백만 원의 기부금을 토대로 제정된 상.

결혼

▶ 6월 13일 서무행정실 류준구 선생 결혼
▶ 6월 20일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정하우 명예교수 자녀 결혼

부고

▶ 6월 2일 남부학술림 정여홍 선생 병사상
▶ 6월 19일 실험목장 허광웅 선생 모친상
▶ 6월 28일 농산업교육과 이용한 명예교수 모친상

[동문소식]

▶ 이형승 동문(농경제 82)이 6월 1일 IBK 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은주동 동문(임학 84)이 6월 1일 (주)동화씨앤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고영곤 동문(농경제 66)이 농협중앙회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 김필식 동문(농가정 61)이 8월 4일 대한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2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교수동정]

▶ 나승일 교수(농산업교육과)는 3월 7일 오하이오주립대로부터 국제우수동문상(International Alumni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외국인 졸업생 가운데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업적이 탁월한 1명에게 시상된다. (사진)



▶ 김관수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LG연암문화재단에서 해외 연구 활동을 지원해주는 연암해외연구교수로 선발되어 현지 체재비와 항공료 등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 노재선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 회복과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연구소로 설립되는 '세계김치연구소'의 임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구 및 산업 인프라, 입지여건, 지자체 지원의지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입지 장소로 광주광역시 선정되었다.

▶ 김경욱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7월 9~10일에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한국농업기계학회의 '2009년 하계 학술대회 및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 김유용 교수(농생명공학부)는 '돈육산업정책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7월 23일 aT센터에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열고 돈육 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돈육 산업 발전을 이뤘다고 합의했다.

▶ 조성인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금년 4월에 제정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동문회 소식]

▶ 서울대학교 임학동문회는 4월 4일 150여 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태화산 학술림에서 식목행사를 개최하여 밤나무 묘목을 심고 친목을 도모했다.



학사일정

9.1(화) 제2학기 개강
9.1(화)~7(월) 제2학기 수강신청 변경
9.14(월)~18(금) 동계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신청

9.21(월)~10.1(목) 2010학년도 제1학기 개설교과목 신청
9.24(목) 수업주수 1/4선
10.22(목)~23(금) 제2학기 자율학습일
10.26(월) 수업주수 2/4선, 제2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1/2선)

11.9(월)~13(금)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11.9(월)~26(목) 2010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11.19(목) 수업주수 3/4선

※ 학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계일류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농생대 발전을 위한 '감사와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 일 시: 2009년 10월 27일(화) ■ 장 소: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샴페인홀
- 문 의: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실 (02-880-4510)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소중한 가족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과감하고 확고한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세계일류수준의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 앞에서 약속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계실 때 비로소 빛나는 자리입니다.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이번 행사에 부디 참석하셔서 뜨거운 격려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박은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 F.873-5579
서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56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56
- 원예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9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3-2039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4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동기지원 T.880-4845 F.880-4847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T.880-4920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 F.873-2039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T.880-4941
F.873-5426
과실류공동수출연구사업단 T.880-4976
F.873-2056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6~9
F.882-7670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998 F.886-48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4-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학 T.880-4824

* 소식을 통해 알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880-4510,
calsweb@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